



##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과 재판본의 사이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Edition and Second Edition of Sky, Wind, Star

---

저자 (Authors)	정우택 Jeong, Woo-Taek
출처 (Source)	<a href="#">한국시학연구</a> , (52), 2017.11, 233-265 (33 pages) <a href="#">The Korean Poetics Studies</a> , (52), 2017.11, 233-265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시학회</a> The Korean Poetics Studies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73154">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73154</a>
APA Style	정우택 (2017).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과 재판본의 사이. 한국시학연구, (52), 233-265.
이용정보 (Accessed)	성균관대학교 115.145.3.*** 2018/02/10 11:5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과 재판본의 사이

정 우 택\*

## 차례

- I. 서론
- II. ‘시인’ 윤동주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
- III. 한국전쟁 전후 상황 변화와 사건들
- IV.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재판본의 재맥락화
- V. 결론

## ●국문초록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은 1948년 1월 30일 정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초판본 시집 출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지용, 강처중, 유영, 정병욱, 김삼불 등이었다. 정지용은 윤동주를 통해 ‘8·15 이후 조선의 운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민족시’의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지용을 비롯한 초판본 편집·간행 참여자들은 윤동주와 시집을 ‘시와 조선과 인민’을 상상하는 텍스트로 기억하고자 했다. 이들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채건을 통한 남북통일정부를 지향하는 노선에 서 있었고, 그런 위치에서 윤동주를 기억했다. 단독정부 수립 후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들 다수는 삭제되거나 전향하거나 월북했다. 1953년, 정음시는 『한하운 시초』 재판본을 출간했다가 공산간첩의 문화공작이라는 필화사건을 겪었고, 강처중이 배후로 언급된 ‘정국은 간첩단 사건’이 터져 온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문화빨치산’ ‘문화계 간첩’ ‘출몰’ ‘침투’ ‘색출’ ‘처단’이라는 냉전적 언어가 난무했다. 한국전쟁 종전 전후 한국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재편되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새로운 판이 요구되고 재맥락화를 시도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은 불온한 텍스트로 오인될 위기에 처했다. <추도시>에서 ‘시와 인민’을 언급한 유영은 이후 근신했다. 초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정병옥은 재판본 출간을 통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윤동주를 둘러싼 컨텍스트의 재정립을 시도했다. 시집에서 정지용, 강처중, 유영은 빠지고 가족적 차원에서 재판찬되었다. ‘시와 조선과 인민’ 대신에 ‘조국과 자유와 문학’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이념에 부합한 언어들로 ‘발문’을 조합하였다. 이후 ‘기독교적 순절시인’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서의 표상 획득이 추진되었다.

## I. 서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중략)…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중략)…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중략)… 걸어가야겠다.”라는 시의 원 제목은 ‘서시’가 아니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sup>1)</sup>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시’라고 생각했고 그는 간절히 시인이 되고 싶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자필시집 원고(1941)와 초판본 시집(1948)과 1955년 재판본 시집에 대한 원전 대조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시집에 대한 서지·매체적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출판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유고시집이기 때문에 편

1) 정우택, 「윤동주에게 있어서 ‘시’와 ‘시인-됨’의 의미」, 『근대서지』 제9집, 근대서지학회, 2014.

찬자에 따라 성격과 맥락이 달라지기도 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정음사가 1948년 1월 30일 초판 발행한 이래 1980년대 이후까지 10여 종 이상을 출간했다. 본인 소장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정음사)는 ‘1985년 3월 20일 개정판 제7쇄’라고 표기되어 있다. 출판사에서 기재한 판수 표기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판(版, edition, 간행 형태를 달리하는 책 출간 횟수)과 쇄(刷, issue, 같은 간행 형태의 책 출간 횟수)를 거듭해 왔다.

최근 엄동섭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판본을 비정(批正)하고 서지를 분석한 바 있다.<sup>2)</sup> 그는 1948년부터 1985년까지 정음사에서 간행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전수 조사하여 10종의 판본을 주렸다. 이 10종을 대상으로 수록 작품의 편수, 간행 시기, 책의 물성 등을 비정하여 다음과 같이 6종의 독립적인 판을 확정하였다.

정음사 출판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판본 현황

판본	시집명	발행 연월일	수록작품
초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48.1.30	시 31편
재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55.2.16	시 89편, 산문 4편
3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57	시 89편, 산문 4편
4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67.5.5	시 89편, 산문 4편
5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77.3.10	시 112편, 산문 4편
6판본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83.10.10	시 112편, 산문 4편

엄동섭 논문의 특징은 시집의 서지적 물질성에 대한 세밀한 비정과 분석을 한 데 있다. 유성호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와 『정지용시집』의 편제적 유사성, 출판 사정, 계보적 특성 등을 논의하였다.<sup>3)</sup> 허정은 윤동주의 시의 민족

2) 엄동섭, 「‘가슴 속에 하나 둘씩 새겨지는 별’들의 이력서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판본 비정과 서지 분석」, 『근대문학』 제4호, 국립중앙도서관, 1917.6.  
3) 유성호, 「세 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한국시학연구』 제51호, 한국시학회, 2017.8.

주의적 정전화, 즉 민족저항시라는 코드로 해석하는 문제를 다룬 바 있다.<sup>4)</sup>

본고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1948)과 재판본(1955)의 간행 출판 사정과 특성, 역사적 맥락, 차이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적·냉전적 갈등 속에서 편찬되고 출판되고 재출판된 윤동주시집의 정치사상적 맥락의 층위와 겹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주로 시집에 관여한 사람들과 출판사의 동향, 역사적 사건을 연동시켜 서술하게 될 것이다.

## Ⅱ. ‘시인’ 윤동주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

### 1. 윤동주라는 시인의 탄생

1945년 6월 14일, 가족들은 윤동주를 시인으로 명명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1945년 6월 14일 가족은 ‘시인윤동주지묘’라는 묘비를 세웠다.  
(사진 제공 윤인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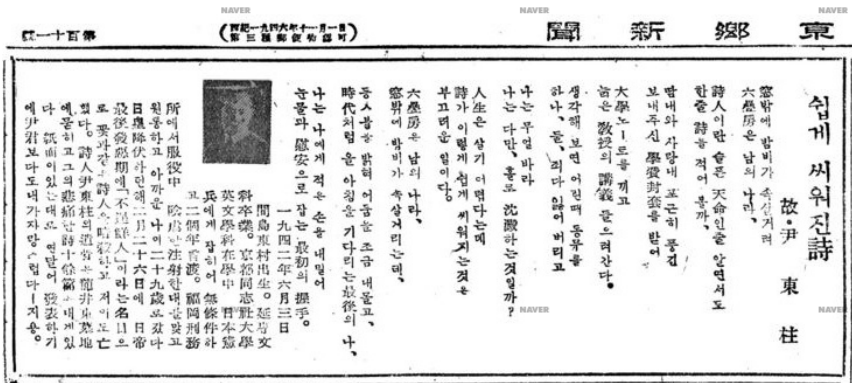
---

4) 허정,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논총』 제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가족들은 생전의 한을 풀어주고자 ‘시인윤동주지묘’라고 비석에 새겼다. 그의 가족에 의해 윤동주는 ‘시인’이 되었다.<sup>5)</sup> 시인이 되고자 했던 윤동주의 오래된 소망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다. 친구들도 그의 ‘시인-됨’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추모하였다.

북강(福岡)형무소에서 옥사한 윤동주 송몽규 양군의 추도회(2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소공동 플라워 다방에서 개최하는 데 회비는 100원)”(『경향신문』 1947년 2월 13일 3면.)

<추도회>의 일환으로 같은 신문에 「쉽게 씌워진 詩」가 게재되고 윤동주는 ‘시인’이라 칭해졌다.



「쉽게 씌워진 詩」와 정지용의 추천글(『경향신문』 1947.2.13)

“일확 행복하던 해 2월 26일(16일의 오해-인용자)에 일제 최후 발악기에 '불령선인'이라는 명목으로 꽃과 같은 시인을 암살하고 저희도 망했다. 시인 윤동주의 유골은 용정 동묘지에 묻히고 그의 비통한 시 10여 편은 내게 있다. 지면이 있는 대로 연달아 발표하기에 윤 군보다도 내가 자랑스럽다—지용.”

무명이던 윤동주를 한국의 문단에 공식 추천한 것은 정지용이었다. 정지용

5) 정우택, 앞의 글 참조.

은 『경향신문』이라는 공식 매체를 통해 “꽃과 같은 시인”, “시인 윤동주”라고 호명했다. 추천자 “지용”이란 이름을 굳이 밝혀 공식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과거 『문장』의 엄격한 3회 추천완료제를 의식한 것인지, 윤동주의 시는 『경향신문』을 통해 「쉽게 써워진 詩」(1947.2.13), 「또 다른 고향」(1947.3.13), 「소년」(1947.7.27), 이렇게 3회에 걸쳐 시가 소개 추천되었다. 이로써 윤동주는 정지용이 문단에 등단시킨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과 동급, 아니 해방기엔 이들보다 더욱 주목되는 ‘시인’으로 탄생하였다.<sup>6)</sup>

## 2. 정음사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병욱, 강처중, 유영, 김삼불 등 친구들과 시인 정지용은 다음해 1월 30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라는 시집을 편집, 발간하였다. 무명 시인 윤동주의 유고집을 출간한 정음사는 어떤 출판사인가?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외솔 최현배는 ‘한글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퍼기 위해’ 1928년 ‘정음’이란 출판사를 등록했다.<sup>7)</sup> 1935년 무렵 최현배의 아들 최영해가 정음사를 주도하며 최현배의 조선어 관련 저서를 출판하는 정도였기에 출판사로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최영해는 연희전문 재학 시절 <삼사문학> 동인으로 문단 활동도 한 바 있고, 졸업 후 동광당, 조광사, 신시대사 등에서 잡지를 편집하고 경성일보사에서 교정을 보아 왔기에 편집 출판에 식견과 능력을 갖추었고, 폭넓은 인맥을 갖게 되었다.<sup>8)</sup> 해방 후 최영해는 사무실(북창동→회현동)을 내고 본격적으로 출판업에 뛰어들었다. 오영식 조사에 의하면 해방기(1945-1950)에 100종 이상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는 을유문화사(175건)와 정음사(167건)뿐일 정도로 정음사는 해방기 대표 출판사가 되었다. 최영해는 뛰어난 편집 출판 능력에 좌우 구분 없는 대인 관계를 바탕으로 출

6) 「소년」(『경향신문』, 1947.7.27)은 정지용이 경향신문사를 퇴사(1947.7.9)하고 난 바로 직후에 발표되었다.

7)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345쪽.

8) 오영식,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2009, 20쪽 참조.

관계의 중심이 되어 1947년 조선출판문화협회의 산과 역할을 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sup>9)</sup>

바로 이 정음사가 1948년 1월 30일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발행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정음사, 1948.1.30) 재킷과 표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 책의 크기는 가로 125mm, 세로 188mm이며, 양장 표지에 좌철로 제본되었고, 가로쓰기로 조판되어 있다. 앞표지는 갈색의 갈포로 꾸며졌으며, 그 위에 이정(본명 이주순)의 목판화로 된 재킷을 덧씌웠다. 정지용의 서문, 유영의 추도시, 강처중의 발문을 포함하여 면수는 71쪽이다.<sup>10)</sup> 이 시집은 1부 ‘서시’에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2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에는 원래 1941년 엮었던 자필시집 『하늘과바람과별과시』에 수록된 18편, 3부 ‘흰 그림자’에는 일본에서 쓴 시 5편, 4부 ‘밤’에는 유고 중에서 선별한 7편 등 총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음사는 해방기에 문제적이고 주목받는 시인들의 시집을 출간했다.

9) 위의 책, 20-21쪽.

10) 엄동섭, 앞의 글, 91쪽.



해방기 정음사 시집 출판 현황

순번	저자	시집명	발행년월	비고
1	김동석	길	1946.1	이대원 장정
2	오장환	병든 서울	1946.7	이대원 장정
3	김광균	와사등	1946	1939년판 재판
4	김광균	기항지	1947.5.1	최재덕 장정
5	여상현	칠면조	1947.9.20	김기창 장정
6	설정식	포도	1948.1.15	배정국 장정
7	유진오	창	1948.1.30	박문원 장정
8	윤동주	하늘과바람과별과詩	1948.1.30	이정 장정
9	윤곤강	피리	1948.1.30	김용준 장정
10	이병철 편	한하운시초	1949.5.30	정현웅 장정

공교롭게도 해방기 정음사에서 시집을 출간한 사람들은 윤동주 외에 모두 조선문학가동맹원이었다. 김동석, 오장환, 여상현, 설정식, 이병철은 월북했고 유진오는 충살당했다. 오장환은 『병든 서울』(정음사) 서문에서 “내가 이 시집을 하로바빠 내어 …(중략)… 우리의 문화전선을 쫓먹는 무리들의 악의를 벗어나 진실로 속여지지 않은 내 의사를 이렇게 표시”<sup>11)</sup>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진오는 「발문」에서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민을 위한 전사가 되는 것이다. …(중략)… 시집 『창』은 나의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각이며 나의 출발점이다.”<sup>12)</sup>고 선언했다. 이들은 시집 및 출판사를 문화전선의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유진오(俞鎭五, 1922-1950)의 시집과 같은 날 같은 출판사에서 나란히 출간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유진오는 다 알다시피 해방기 가장 뜨거운 전위시인이었다. 1946년 9월 1일 국제청년대이 기념대회장에서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란 시를 낭송하여

11) 오장환, 「머리에」, 『病든 서울』, 정음사, 1946.7, 2쪽.

12) 유진오, 「발」, 『창』, 정음사, 1948.1.30, 93-94쪽.

<미군정 포고령 위반죄>로 구속되고 9개월간 복역했다. 그는 8·15 이후 최초의 필화사건 구속자가 되었다. 그는 1949년 2월 말 빨치산으로 지리산에 입산했다가 체포되어 이후 총살당했다.

최영해가 위 시인들의 시집을 냈다는 것은 핵심적인 시대정신에 접속하고 이것을 미디어를 통해 결집했다고 보여진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위치와 배치도 우연이거나 예상로운 일은 아니다. 정음사 시집 출간은 윤동주가 최영해 사장과 연희전문 동문이라거나 최현배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초과하는 윤동주 시의 내재적 동인이 있는 것이다.

### 3. 해방기 정지용의 시적 모색과 윤동주와의 만남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은 정지용의 「서」로 시작한다.

“죽기보담 싫은 날, 나는 천의를 뒤집어쓰고 차라리 병 아닌 신음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

재조도 탕진하고 용기도 상실하고 8·15 이후에 나는 부당하게도 늙어간다.

...(중략)...

아직 무릎을 꿇을만한 기력이 남았기에 나는 이 붓을 들어 시인 윤동주의 시고에 분향하노라.”(「서」 3쪽)

‘시인 윤동주’ 위패를 마주한 제사장의 난감한 신음을 듣는다. 정지용은 윤동주와 그의 시를 마주하고 곤혹스럽다.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서」 8쪽)은 윤동주의 죽음을 대면하고는, 살아남은 자의 자괴와 함께 ‘지금 여기, 해방기’를 통과하는 자신을 문제 삼는다.

정지용은 윤동주 시 중에서 「쉽게 씌워진 詩」와 「또 다른 고향」을 추천작으로 뽑았다.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줄 알면서도

정지용은 “시인이란 슬픈 천명”에 감전되고 격동된 것 같다. 운동주를 대면하고 “부당하게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8·15 이후”의 정국과 문학 예술의 처지, 시를 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직시하는 곤혹스러움이다.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지용이 8·15 이후 시를 쓰지 못했다. 자기 시는 쓰지 않고 1947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시 번역 소개에 집착한다.<sup>13)</sup> 이는 ‘새로운 민족시’를 위한 모색이었던 것 같다.

해방 이후 1947년 12월 28일 운동주 시집 <서문>을 쓸 때까지 발표한 시는 「애국의 노래」(『대조』 1호, 1946.1), 「그대들 돌아오시니」(『혁명』 1호, 1946.1), 노래 「추도가」(『대동신문』 1946.3.2.)로, 고작 3편뿐이었다. 정지용은 왜 시를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1948년 10월에 발표한 「조선시의 반성」(『문장』 속간호, 3권 5호)에 나타나 있다. “시를 써 내놓지 못하고 시를 논의하는 것이 꼭 부끄러운 노릇.”<sup>14)</sup>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대가 써야 할 시적 이념형을 제시하고 변민했다. “8·15 직후 조선의 새로운 운명에 해당할 새로운 민족시”<sup>15)</sup>가 그 이념형이었다. 막상 그 자신은 해방 이전의 시적 스타일과 감각, 양식, 리듬, 언어를 일신한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언어, 시형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발표할 수 없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13) 1947년 3월부터 1949년 1월까지 29편의 외국시를 번역한다. 정지용, 최동호 엮음, 『정지용전집1』, 서정시학, 2015, 711-714쪽 참조.

14)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속간호, 3권 5호, 1948.10, 112쪽.

15) 위의 글, 119쪽.

한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에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중 1절

## 을 인용하고 평가하기를

“시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의 시를 예거하여 대개 이러하고 그 외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이 하도 많으나 이만만 들어도 8·15 직후의 일부 시가 경향의 약속 없이 이루어진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현실과 사태에 대응하여 정확한 정치감각과 비판의식이 희박하면 할수록 유리되면 될수록 그의 시적 표현이 봉건적 습기 이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본다. 시의 재료도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성이 박약한 것일수록 ‘시적’인 것이 되고 언어도 이에 따라 생활에서 후퇴된 것이므로 그것이 ‘교묘한 완성’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분식이 될지언정 생활하는 약동하는 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그가 등단시킨 조지훈의 시도 문제의식 없이 우수한 분식에 급급할 뿐, 결국엔 봉건적 인습에 얽매어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지향하는 “8·15 이후 조선의 운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민족시”는 “현실과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감각과 비판 의식”을 갖춘 “생활과 현실에서 약동하는 시”를 말한다. “민족의 추진 비약기에 있어서 문화의 전위인 시와 문학이 일체를 포기하고 일체를 획득하는 혁명적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운명적 과업을 위하여 무엇 보다는 예술적 이념과 감각이 첨예 치열하여지는 것은 차라리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sup>17)</sup>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지용은 문화적 전위로서 시의 위의를 강조했다.

---

16) 위의 글, 121쪽.

17) 위의 글, 122쪽.

“세계 인민의 원리와 이차대전 세계 민주계열의 승리로 8.15를 계기하여 역사적 창조로 결정된 것이다. 제2 창세기에 필적할 세계 인민 특히 약소 피압박 조선민족의 신기원에 들어서 문학은 …(중략)… 만성 소시민적 허탈증을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 농민에서 시와 문학이 창조되기는 조선에서 이른다. 원래 다감한 소시민 문학인의 대가계(大家系)인 인민문학의 분류(奔流)에 다시 가세하여 당래할 민족문학의 전초가 되기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sup>18)</sup>

고 강조하며 “8·15 이래 조선 인민투쟁문학”<sup>19)</sup>이 원리임을 주장했다. 그런데 8·15 이후 발표되는 시라는 것이 대부분 퇴행적이고 자기배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지용 자신도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재조도 탕진하고 용기도 상실하고 부당하게 늙어간”다고 자탄했다. 당대 시단이 해방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제대로 전유하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 때의 낡은 의식과 감각과 서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고식적이고 봉건적이며 불성실하다고 질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에서 “조선의 운명에 해당한 새로운 민족시”를 창출하려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 시의 위의를 포착했다. 정지용은 윤동주 시 자체가 8·15 이후 새로운 민족시의 표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문사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배알을 것 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고나!” 윤동주가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윤동주가 계속 시를 썼다면 고독을 견디는 힘과 강인한 뼈로 ‘새로운 민족시’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믿고 아쉬워하였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18) 위의 글, 123쪽.

19) 위의 글, 123쪽.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는 「또 다른 고향」을 인용하고 “만일 운동주가 이제 살아 있다고 하면 그의 시가 어떻게 진전하겠느냐는 문제— 그의 친구 김삼불 씨의 추도사와 같이 틀림없이/ 아무렴! 또 다시 다른 길로 분연 매진할 것이다.”<sup>20)</sup>고 예상했다. 정지용은 이 시대에 운동주와 같은 “분연 매진”하는 질적 비약과 치열함의 부재를 아쉬워하였다. 정지용은 질적 비약을 위한 치열한 고투를 운동주의 시정신, “시인이란 슬픈 천명”으로 독해했던 것이다.

정지용이 운동주를 발견하고 이 글을 쓸 당시 1947년 12월말 현재, 그의 주변은 수세에 몰리고 쫓기고 체포되었다. 미군정은 1947년 7월 26일 <군정법령 제55호>에 입각해 진보진영을 체포하기 시작했다.<sup>21)</sup> 8월 11-12일 수도권구 경찰청에서는 민전 산하 각 단체원 100여 명을 검거하고, 각 신문사 종사자들도 검거<sup>22)</sup>함으로써 미군정과 민전의 대립은 격화되어갔다. 이런 시국의 연장속에서 검거와 검열과 압수가 강화되고 오장환 등은 검거를 피해 월북했다.<sup>23)</sup>

정지용은 ‘인민민주주의문화운동’으로서의 ‘민족문학’을 지향하며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 겸 시부위원, 아동문학부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sup>24)</sup> 그는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지부 설립준비위원뿐 아니라 조선문학가동맹의 각종 강연회 및 낭송회에 참여하며 활동했지만, 이를 시의 언어와 형식으로 창안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20) 정지용, 「서」; 운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48.1, 7-10쪽.

21) 「폭동계획은 허구— 민전에서 UP보도 반박 성명」, 『조선중앙일보』 1947.7.29.

22) 「백남운 이기석씨 등 100여 명 검거」, 『조선중앙일보』, 1947.8.13.

23)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전향의 반향」, 『반교어문연구』 32호, 반교어문학회, 2012.2, 311쪽.

24) 박민규, 「조선문학가동맹 ‘시부’의 시 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시학연구』 33호, 한국시학회, 2014.4; 배호남, 「해방기의 정지용 문학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29집,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15; 장철환, 「해방기 정지용 시의 연구」, 『한국시학연구』 51호, 한국시학회, 2017.8, 288쪽.

#### 4. 강처중이란 메신저

강처중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에 친구를 대표해서 「발문」<sup>25)</sup>을 썼다. 강처중은 친구 동주의 품모와 행동, 습관, 성품, 은밀한 속내까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담담하게 서술했다. 동주가 “한 여성을 사랑하였”지만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힘써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자기 관리에 치밀한 동주도 강처중에게만큼은 틈을 내주었던 모양이다. 강처중은 윤동주의 후견인 대리인 역할도 했다. 윤동주는 일본에 유학가면서 자기의 뒤처리를 강처중에게 맡겼다. 유학 떠난 뒤에 출간된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앨범 대리수령자도 강처중이었고, 윤동주 하숙집에 남았던 물품을 수습해두었던 법적 대리인도 강처중이었다.

윤동주는 일본 유학 중 강처중에게 편지를 보내 심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이 편지 속에 삽입되었던 시들(「쉽게 씌워진 詩」, 「흰 그림자」, 「사랑스런 추억」, 「흐르는 거리」, 「봄」 등 5편)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인용자) 원고를 서울친구들에게 책갈피에 교묘하게 감추어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보냈던 일도 그와의 우정의 한 면이었다.”<sup>26)</sup>던 그 사람이 강처중이었다. 윤동주가 필사본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19편(1941.12)을 엮을 때 포함하지 않았던 낱장 시들(「팔복」, 「위로」, 「참회록」, 「간」 등) 원본도 강처중에게서 나왔다. 자필원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만들 때도 강처중과 협의했던 것 같다. “정병욱이 보관해 낸 윤동주의 자선시집에 있는 19편의 시와 강처중이 보관해낸 시들 중에서 골라낸 12편을 합친 31편의 시를 가지고 1948년 1월 정음사에서 찍어낸 시집이, 그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초간본이다.”면서 『윤동주평전』의 저자 송우혜는 “정병욱보다 강처중이 해낸 기여와 역할이 더욱 극적이고 방대”하다고 평가했다.<sup>27)</sup>

강처중은 1938년 연전 문과 입학 동기로서 윤동주 송몽규와 세 명이 기

25) 강처중, 「발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48.1.30., 69-71쪽.

26) 유영, 「높고 깊은 뜻은 어디에」, 『연세춘추』, 1980.3.3.

27)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9(7쇄), 500-501쪽.

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우정을 쌓고 의기투합했다. 강처중은 연희전문 문과 학생회장으로서 리더였다. 윤동주가 「새로운 길」·「우물 속의 자화상」을 발표한 연전 문과 학생회지 『문우』(1941.6.5)의 편집 겸 발행인이기도 했다. 송몽규는 문과학생회 산하 문예부장, 윤동주는 문예부원으로 어울렸다. 8·15 이후 윤동주·송몽규의 추도회(1947년 2월 16일, 서울 소공동 플라워다방)를 주도하고 광고한 것도 강처중이었던 것 같다. 강처중은 8·15 이후 『경향신문』 창간멤버이자 조사반원으로 정지용(주간, 염상섭(편집부장)과 함께 근무했다. 추도회에 30여 명이 참석하여 윤동주 시집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고, 이 자리에 정지용도 초대되었다. 이런 일의 중심에 강처중이 있었다. 북간도에서 단신 월남한 19세 동생 윤일주를 거두고 정지용에게 데리고 가서 면담하고 「서」를 쓰게 주선한 것도 강처중이었다. 강처중은 윤동주 사망 이후에도 윤동주를 대리하며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강처중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정음사, 1948.1)를 내고 1949년 9월 중순경 체포<sup>28)</sup>되어 처형을 기다리던 중 6·25가 발발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가 1950년 9월 월북했다고 한다.<sup>29)</sup>

### Ⅲ. 한국전쟁 전후 상황 변화와 사건들

#### 1. 전향 국면의 정지용 지우기

정지용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민주채건을 통한 남북 통일정부를 요구했다. 정지용은 「남북협상을 성원함」이라는 ‘108인 문화인 성명’(1948.4.14)에 참여했다. 이 성명은 “남한만의 5·10선거가 38선의 ‘실질적 고정화’이자 ‘민족분열의 구체화’라고 지적하면서, 자주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28) 「정국은 사건 군재 개정」, 『동아일보』, 1953.10.14.

29) 송우혜, 앞의 책, 515-518쪽 참조.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남북협상의 태도를 추진하여 통일국가의 수립을 기필하자’고 주장하고, ‘남북협상만이 조국의 영구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는 조국의 길이다’라고 역설하였다.<sup>30)</sup> 5·10선거 이후 단독정부 수립이 임박하자 「조국의 위기를 천명함」이라는 ‘문화언론인 330명 선언문’(1948.7)에도 서명했다. 단독정부는 민족을 반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조국의 자주적 민주재건을 위해서는 남북을 통한 자주적 통일 건설이 시급하다고 선언했다. 통일자주독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했다.<sup>31)</sup>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남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엔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냉전의 계절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단독정부를 반대했던 중간과 혹은 좌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해졌다. 정지용은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삭제되었다.

“(1948년－인용자) 8월 15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좌파 문인들의 글은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교과서는 이미 그전에 제작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도적인 조치로 먹칠하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 먹칠하기는 전국 도처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략)… 6·25 이후 일반 출판물의 경우에도 좌파 내지는 월북 문인은 성명조차 적는 것이 사실상 금기 사항이 된 것이다. …(중략)… 정복 차림의 경관 한 명이 들어와서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다. 먹칠이 끝난 뒤에 시간이 남았지만 수업은 없었다. 정지용의 「고향」과 「춘설」을 지웠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sup>32)</sup>

라고 유종호는 기억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으니, 그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1948.12)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구로 보도연맹(1949.6.5.)을 조직했다.<sup>33)</sup> 1949년 10월 초 국가이념에 위반되는 저작물 일절 발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교부의 지

3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4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118쪽.

31)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33쪽.

32) 유종호, 『나의 해방전후』, 민음사, 2004, 264-265쪽.

33)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19쪽.

시에 따라 정지용의 시와 글들, 「고향」(『중등국어1』), 「피꼬리와 국화」(『중등국어2』), 「옛날 새로운 정」(『중등국어3』), 「소곡」·「시와 발표」(『중등국어4』), 「말뚝별」(『신생국어1』), 「별뚝 떨어진 곳 더 좋은데 가서」(『중등국어작문』)와 「노인과 꽃」, 「선천」 등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sup>34)</sup>

1949년 9월 하순에는 전위시인 유진오 등 4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10월 8일에는 서울시 문화단체총연맹 서기장 김진항 등이 검거되었다. 이어 10월 18일 공보처는 <미군정 법령 제55호>에 근거하여 남로당, 근로인민당, 사회대중당 등 16개 정당과 남조선여성동맹, 조선청년총동맹, 전국농민연맹 등 117개 사회단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11월 초 김태선 서울시 경 국장은 문학가동맹 가입자들의 경우 전향하지 않으면 저서를 판매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인 정지용 등이 전향한 것도 이 무렵이다.<sup>35)</sup>

정지용은 테러와 죽임의 협박 속에서 문화인으로서의 최초로 전향,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정지용은—인용자) 남로당의 충실한 선전기관으로서 행세해오던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때로는 중간파로 혹은 좌익으로 세간에 커다란 의혹을 던져왔었던 바 남로당원 자수주간인 4일 오전 10시에 국민보도연맹에 자진 가맹을 해왔다는 바 동기는 문학가동맹을 탈퇴한 후 심경의 변화로서 온 것이라고 한다. 문인으로서 자진 가맹해 온 것은 정씨가 처음으로 정씨는 가맹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소위 야간도주하여 38선을 넘었다는 시인 정지용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그러한 중상과 모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내가 지금 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한 개의 시민인 동시에 양민이다. 나는 23년이란 세월을 교육에 바쳐왔다. 월북했다는 소문에 내가 동리 사람에게 빨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바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어 오늘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볼까 한다.”<sup>36)</sup>

34) 김철, 『구체성의 시학』, 실천문화사, 1993, 46쪽; 이석우,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평전』, 푸른사상사, 2006, 89-90쪽.

35) 김기진, 앞의 책, 24쪽.

36) 「시인 정지용 씨도 가맹—轉向之辯 “심경의 변화”」, 『동아일보』 1949.11.5.

정지용의 보도연맹 가입과 전향은 대서특필되었다. 그는 자수하고 전향하고 자기를 부정했다. 정지용의 신체와 영혼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두고두고 좌익이라는 멍에 속에 금기 인물이 되었으며, 각종 시국 대회에 동원되었다. 「종합예술제, 전향문화인 참가」(『동아일보』 1949.12.4)에서 정지용은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뱃세지>를 낭독하고 사회를 보았다. 그는 「보도연맹 주최, 국민예술제전」(『경향신문』 1949.12.31.)에 동원되어 시를 낭송했고,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보도연맹에서는 문화실 소속의 각계 문화인이 총궐기하여 새로운 희망에 불타는 각오를 피력”(「오늘 보도연맹 국민예술제전」(『경향신문』 1950.1.8.) 하는데서 정지용은 강연하였다. “국민보도연맹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타공(打共) 강조주간을 실시하고”(「打共 즉 民國興隆, 보련에서 打共 강조 주간 실시」, 『경향신문』 1950.3.30.) 정지용은 강연하였다. 정지용이 월북한 이태준에게 보낸 메시지는 「상허에게」란 제목으로 『서울신문』(1949.12.5)에 실리고, 『이북통신』(1950.1)엔 「소설가 이태준 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반복해서 재동원되었다. 정지용은 동원되고 끌려다니며 전향한 좌익의 상징으로 ‘전시’되었다.

마침내 정지용은 6·25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남한에서 정지용은 월북한 ‘빨갱이’가 되었다. 조선 최고의 시인 정지용은 언급해선 안 되는 금기의 인물이 되었다.

## 2. 정음사의 필화 사건과 <정국은 사건>, 그리고 강처중

6·25 이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좌익’들의 텍스트로 오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 시집을 출판한 정음사는 필화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렀다.<sup>37)</sup> 1949년 5월, 정음사에서 ‘이병철 편’으로 『한하운시초』를 출간한 바 있다. ‘문둥이’ 시인 한하운을 발견하여 그의 시세계를 해설하고 『한하운 시

37) 아래의 ‘한하운시집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정우택,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집, 상허학회, 2014.2를 참고했다.

초』라는 시집을 편한 이병철은 ‘전위시인’으로 널리 알려졌고 조선문학가동맹원이었다. 그의 시 「나막신」이 미군정청 문교부 발행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될 정도로 그는 총망 받는 시인이었다. 이병철은 조선문화단체인총연맹 서울시지부 예술과 지하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뼈라를 제작 배포하고 공작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전후에 체포 투옥되었다. 6·25발발 이후 출옥하여 서울에서 의용군 동원 연설 등의 활동을 하다가 9·28 전후 월북했다.

1953년 6월 30일 정음사에서 『한하운시초』 재판본을 출간했다.<sup>38)</sup> 초판본 편찬·해설자 이병철은 월북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신 조영암, 박거영의 글과 정음사 사장 최영해의 「간행자의 말」이 실렸다. 『한하운시초』 재판본이 출간되자, 「민족적 미움을 주자—적기가 『한하운시초』와 그 배후자』라는 글이 제기되었다. ‘문둥이’ 시인이라는 한하운은 가공인물에 불과하고 월북했던 이병철이 채침투하여 배후에서 문화공작을 하고 있으며 『한하운시초』는 공산주의 선전 선동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문화빨치산’ ‘문화계 간첩’ 등의 언어가 난무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자 치안국, 검찰청, 국회에서까지 시비하였다. 「한하운 시집 사건—치안국서 본격 수사 개시」(『태양신문』, 1953.11.24)에서 “동 시집을 출판한 출판사의 의도까지도 추궁할 것”이라며 정음사에도 시비를 걸었다. 결국 정음사 사장 최영해는 치안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치안국장은 “한하운 시집을 간행한 정음사 사장 최영해에 대한 조사도 해보았는데 그는 사상이 온건한 사람이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다.”<sup>39)</sup>는 답변이 언론에 실렸다.

같은 시기에 국회에서는 ‘문화계에도 간첩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한하운 시집 사건과 정국은 사건을 연관시켰다.

이북 공산당의 선봉문학가로서 이병철이 쓴 것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이 요전번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중략)… 문화계에도

38) 위의 글, 148쪽.

39) 「한하운은 실재 인물—이 치안국장이 언명」, 『서울신문』, 1953.11.23.

간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지금 <정국은(鄭國殷) 사건>으로 말미암아 엷은 얼음을 뵈었다는 오늘날 이러한 국민의 심경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문둥이 시인의 하나의 시집이 각 군데에서 애독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이것은 결코 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sup>40)</sup>

한하운 시집 사건이 정국은 사건과 연관되어 논란되었다. <정국은 사건>은 휴전 직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정치 사회의 최대 이슈였고 언론은 대서특필하였다. 강처중이 이 사건의 핵심 배후 인물로 등장했다.

4281(1948-인용자)년 7월경 국제신문사를 창설하여 피고인(정국은-인용자) 자신은 편집국장에 취임하고 강처중을 촉탁으로 임명하였던 바 동년 9월 경에는 동인이 남로당원이라는 정(情)을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처중의 권고에 의하여 신문 논조의 좌경화를 묵과하여 오다가 4282(1949-인용자)년 1월 피고인이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위반으로 피검 구속된 이후 국제신문이 노골적인 반정부적 날조 기사 게재로 인하여 폐간처분을 받았고 동년 6월 피고인이 보석으로 출감됨을 계기로 강처중의 요청에 따라 남로당에서 출자한 금 100만원을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국방신문사를 창설함과 동시에 강처중의 권유에 의하여 남로당에 정식 가입하여 기본선을 확정한 자인 바 피고인은 4282년 7월 국방신문사 주간에 취임하고 기자 및 간부요원으로서 강처중의 지시에 의거하여 남로당원인 박영철, 정계현, 최봉현 등으로서 진영을 구성하여 강처중의 당 사업인 정보수집 공작을 위하여 적극 진력할 태세를 갖추고 이후 동년 9월 중순경 강처중이 피검될 때까지의 기간 중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라는 강처중의 지시에 의하여 해 정보는 보고차제(報告次第) 남로당을 통하여 북한의 적괴피집단에 도달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정치 경제 문화계의 동향을 예의 탐문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내 소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자유로 출입하여 고급장교와 접촉하면서 군고급지휘관 간의 알력상황 국군장비 및 미군사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시내 중구 다동 번지불상 강처중 하숙과 국방신문사 사무실 기타 장소에서 강처중을 만나 구두로써 보고함으로써 간첩행동을 하였음<sup>41)</sup>

40) 「제17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8호, 1953.11.19. — 한하운시집사건에 대한 최원호 의원의 질문과 국무총리의 답변」, 계훈모, 『한국언론연표Ⅲ』, 관훈클럽신영기금연구기금, 1993, 1099-1100쪽.

<정국은 간첩 사건>의 핵심에 남로당 특수요원이자 윤동주의 절친 강처중이 있었던 것이다. “정(국은-인용자)은 남로당 특수정보책 강처중과 친근한 사이였다는 것”이 핵심 죄명이 되는 상황이었다.<sup>42)</sup> 강처중은 이 사건의 거물급 배후로 등장했다. 강처중은 남로당 총책 김삼룡의 직계 하부로서 특수부 간부<sup>43)</sup>였다. 정국은은 12월 5일 사형을 언도받고 다음해 2월 사형 집행되었다.

이후로 오랫동안 강처중은 윤동주 근처에서 분리시켰다. 강처중이란 존재를 지웠다. 아우 윤일주 교수는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혜에게 “평전에서 강처중의 존재와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는 강요에 가까운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좌익 인사’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44)</sup> 19세의 나이로 단신 월남한 윤일주를 거두어 주고, 간직했던 동주의 유품을 찾아주고 정지용에게 소개하여 시집을 내는 것을 주선했던 사람이 바로 강처중 아닌가? 윤일주는 강처중을 지워야 했다. 윤동주가 좌익에 오염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했다.

### 3. ‘시와 조선과 인민’을 상상하는 이름, 윤동주

유영(柳玲)은 윤동주와 송몽규의 연희전문학교 문과 동기로서 “함께 즐겨 거닐다/ 한 잔 차에 시름 떠어/ 뭉킨 가슴 풀어보단”<sup>45)</sup> 가까운 친구였다. 유영은 특히 시를 함께 공부하고 창작하던 문우였기에 숙소(기숙사, 아현동, 누상동 등지)를 왕래하며 시를 돌려 읽고 품평을 하곤 했다.<sup>46)</sup> 유영은 윤동주 2주기 추도회에서 「창 밖에 있거든 두다리라—동주 몽규 두 영을 부른다」는 추도시를 지어 바쳤다. 이 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에 ‘추도시’로

41) 「정국은 사건 군재(軍裁) 개정(開廷)」, 『동아일보』, 1953.10.14.

42) 「남로당 자금으로 활동」, 『동아일보』 1953.11.18.

43) 「정국은 사건 전모 발표」, 『동아일보』, 1953.9.22.

44) 송우혜, 「『윤동주 평전』의 담긴 뒷이야기」,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7, 512쪽.

45) 유영, 「창 밖에 있거든 두다리라—동주 몽규 두 영을 부른다」,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1, 65-66쪽.

46) 유영, 「연희전문 시절의 윤동주」, 『나라사랑』, 외솔회, 1976.6, 126쪽 참조.

수룩되었다. 이 추도시는 “동주야 몽규야/ 너와 즐겨 외우고/ 너와 즐겨 울던/ 삼불이도 병욱이도/ 그리고 처중이도……”를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꿈꾸었던 이상을 환기시킨다. 즉

시와 조선과 인민을 말하던  
시와 조선과 인민과 죽음을 같이하려던  
네 벗들이  
여기와 기다린지 오래다.

...(중략)...

어여쁘던 네 노래를 기다린지 이미 3년  
시원하게 원수도 못 갚은 채 새 원수에 쫓기는  
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네 벗들이  
다시금 왜쳐 네 이름 부르노니  
아는가 모르는가  
“동주야! 몽규야!”

이 친구들은 “시와 조선과 인민”에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의기투합했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여기서 “시원하게 원수도 못 갚은 채 새 원수에 쫓기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원수’에 쫓기는 신세라는 것이다. ‘새 원수’는 누구인가? 이는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과 인민(의 권리·복지와 민주주의)”을 억압하고 분단을 획책하는 세력을 의미할 것이다. 추도식에 “특별히 임석한 정지용”<sup>47)</sup> 역시 인민과 민주주의를 중심에 놓은 문학관을 역설했다. 그런데 이들은 “쫓기는” 신세, “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형국에 맞닥뜨리고 지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다시금 외쳐 네 이름을 부르노니”라는 것은 동주와 몽규의 길이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 인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도정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이에 바쳐졌으며 너의 벗들은 너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용기를 내

---

47) 위의 글, 127쪽.

서 그 길을 갈 것이라는 전언이다.

“벗” 강처중도 이런 논지를 펼친 바 있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과 함께 강토를 지킨 때문이다. 인민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민족 존망의 위기에 나와서 인민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간 분들이다.”<sup>48)</sup>

강처중은 이순신의 인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인민과 함께 이 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인민문학의 분류(奔流)에 다시 가세하여 당래할 민족문학의 전초가 되”<sup>49)</sup>어야 한다는 정지용의 문학론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추구할 “시”란 “조선과 인민”과 함께 하는 길이었다. “진정한 지도층과 막대한 인민군(人民群)의 통합적 강경한 투쟁으로 38선 해소와 자주통일독립정부”<sup>50)</sup> 수립이 당시 문화인의 급선무라는 인식이 이 시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으며, 윤동주 벗들의 생각이고, 윤동주의 고뇌와 시와 죽음도 이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석하고 주장하며, 동주와 몽규를 ‘시와 조선과 인민’의 이름으로 추도했다.

정지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 「서」에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한 대목

“만일 윤동주가 이제 살아 있다고 하면 그의 시가 어떻게 진전하겠느냐는 문제—

그의 친우 김삼불 씨의 추도사와 같이 틀림없이  
아무렴! 또 다시 다른 길로 분연 매진할 것이다.”<sup>51)</sup>

정지용이 “아무렴!”이라고 한 것처럼, 윤동주가 8.15 이후 살아 있어 시를 썼다면 “조선과 인민”의 민족문학, 조국의 자주독립통일국가를 인민이 주체

48) 강처중, 「충무공 이순신」, 『경향신문』 1947.4.27.

49)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속간호, 3권 5호, 1948.10, 123쪽.

50) 정지용, 『산문』(동지사, 1949.1); 최동호 엮음, 『정지용전집 2』, 서정시학, 2015, 628쪽.

51) 정지용, 「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10쪽.



가 되어 건설하는 전망을 창조하는 데 분연 매진했을 것이라고, 김삼불, 강처중, 유영뿐 아니라 정지용도 확신하고 있었다.

김삼불은 윤동주 추도회(1947.2.16.)에서 “윤동주 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연구·발표 겸 비판을 하였다. …(중략)… 시의 우수성에서 소월 시를 넘어섰다고 증명하였다.”<sup>52)</sup> 이에 정지용이 찬사를 보냈다. 김삼불은 윤동주의 연회 전문 문과 동기로 절친하게 지내며 문우회 활동을 함께 했다. 김삼불은 판소리 및 판소리계소설 연구의 개척자로 꼽힌다. “좌익계열에 동조했던 김삼불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표출한 것은 1947년에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이 제출되고 동맹휴학이 전역으로 확산될 때, …(중략)… 좌익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자협회>의 회원이 되어 동대문경찰서에 구류되기도 하였다.”<sup>53)</sup> 그는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 IV.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재판본의 재맥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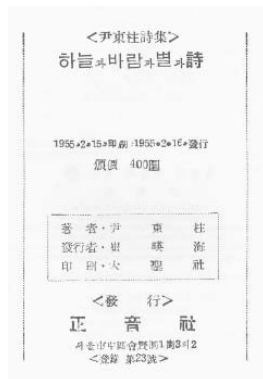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재판본은 1955년 2월 16일 정음사에서 발행되었다. 책의 크기는 가로 148mm, 세로 190mm이며, 반양장 표지에 우철로 제본되었고, 세로쓰기로 조판되어 있다. 앞표지의 장정은 김환기가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병욱의 「후기」와 추도사, 윤일주가 쓴 윤동주의 약전 「선백의 생애」 등을 포함하여 면수는 224쪽이다. 이 시집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략)… 수록된 작품수는 시(동시) 89편, 산문 4편이다.”<sup>54)</sup>

---

52) 유영, 앞의 글, 127쪽.

53) 유춘동, 「남북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6, 76쪽.

54) 엄동섭, 앞의 글, 92쪽.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재판본(1955.2.16) 표지와 판권지

1955년에 윤동주 시집 재판본을 출판하게 된 데는 초판본을 낸 이후 북간도에서 여동생 윤혜원이 윤동주의 다른 시 원고와 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증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1955년이 윤동주 서거 10주기라는 의의도 있었다.

그런데 1955년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판권지에는 ‘재판’이라는 표식이 어디에도 없다. 1948년 초판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1955년판이 초판본인 것처럼 되어 있다. “10년이 흘러간 이제 그의 유고를 상재함에 있어 솟弟(사제)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sup>55)</sup>다고 언급하여 이제야 첫 시집을 내게 된 만시지탄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48년판 초판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이 전집을 흔쾌히 맡아 출판하여 주신 고인의 선배이신 정음사 최영해 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이기지 못하는 바”<sup>56)</sup>이라고 하여 시집 출간 주체를 최영해에게 돌리며, 초판본의 정지용, 강처중, 유명익의 존재를 지웠다. 1955년 재판본은 윤일주와 정병욱<sup>57)</sup>만 참여했다. 가족 차원에서 편집하고 출간하였다.

55) 윤일주, 「선백의 생애」;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220쪽.

56) 정병욱, 「후기」;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204쪽.

57) 윤일주는 정병욱의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정병욱과 윤일주는 처남매부지간이 되고 윤동주와는 사돈지간이 되었다.

윤일주는 「선백의 생애」를 기술하며 ‘사형(舍兄)’ 윤동주에 대해 “舍弟(사제) 一柱(일주) 謹識(근식)”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가족 간의 사적 기억과 기록으로 글의 성격을 조신하게 낮추었다. “또 다른 고향”(정지용과 김삼불은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민족문학’에 대한 기획의 기표로서 해석)을 ‘저승’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윤일주는 “생전에 무명하였던 고인의 사생활을 전할 책임을 홀로 느끼어 감히 붓을 들었”다며 가족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윤동주를 기억하고 정리했다.<sup>58)</sup> ‘조선’ ‘인민’이라는 이념적 담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듯 사적인 담론으로 환원했다.

1955년 재판본은 정병욱 주도 하에 꾸며졌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작품 성격을 재조정·재정립했다. 정음사에서 『한하운 시초』 재판본이 출간(1953.6.30.)되고, 그것이 필화사건으로 비화(1953.8.24.)되기 직전, 그리고 <정국은 사건>(1953.8.31.)이 터지기 한 달 보름 전 정병욱은 『연희춘추』(1953.7.15.)에 ‘윤동주 유고 특집’을 꾸미고 자신은 「고 윤동주 형의 추억」이란 글을 게재했다.

“그(윤동주-인용자)가 항상 입버릇처럼 오이던 정지용의 「압천」 …(중략)… 그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 지용 …(중략)… 오장환의 「Last Train」도 자주 읊었다. …(중략)… 그의 작품에 구비치는 고(瓢)박에서 지용의 「고향」 「압천」 용아 영랑적 요소와 지용의 「카페 프랑스」 장환의 요소가 깃들인 것을 이해할 것이다. …(중략)… 정주나 장환의 절망적인 통곡도 아닌 시, 동주만이 개척할 수 있고 동주 아니고는 부르지 못할 불후의 민족혼, 압박받은 불행한 조국의 최후를 수호한 민족의 혈서”<sup>59)</sup>

그는 이 글에서 윤동주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 정지용을 언급하고, 윤동주의 시는 정지용+오장환+박용철+김영랑의 요소가 깃들여 있음을 자랑스럽게 서술했다. 이런 발언을 한 직후 정음사가 『한하운 시초』 재판본 때문에 필화사건에 휩싸이고, <정국은 간첩 사건>의 배후로 강처증이 지목되어 사회가

58) 윤일주, 앞의 글, 220쪽.

59) 정병욱, 「고 윤동주 형의 추억」, 『연희춘추』, 1953.7.15.

좌익 정화의 냉전 상황에 돌입하자, 정병욱은 깜짝 놀란 것 같다.<sup>60)</sup> ‘공산권 첩단’의 ‘출몰’, ‘색출’, ‘처단’ 등의 살벌한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윤동주를 정지용과 오장환의 이름으로 수식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한하운시초』 사건이 6·25 이전 편집자인 이병철 때문에 발단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을 것이다. 「서문」과 「발문」을 쓴 정지용과 강처중은 이병철과 같은 부류가 아닌가. 특히나 <정국은 간첩 사건>의 핵심 배후 인물로 언급되는 강처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편집 주체 중 한 명이자 직접 「발문」을 썼으니, 지울 수도 없고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이었다. 자칫 윤동주 시집도 불온한 텍스트로 시비를 걸까봐 조마조마했다. 「추도시」에서 ‘인민과 시’를 윤동주와 결부시켰던 유영은 근심했다.

초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정병욱은 재판본 출간을 통해 윤동주 컨텍스트의 재조정과 재맥락화를 시도했다. 정병욱은 재판본 「후기」<sup>61)</sup>에서 윤동주의 “시는 조국의 문학사를 고치게 하였고, 조국의 문학을 세계적인 물질기 속으로 이끌어 넣는데 자랑스런 힘이 되었다.”(199쪽)라고 하여 윤동주의 시가 한국문학사의 본류에서 세계문학적 보편성에 닿아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조국’을 강조하여 윤동주를 북간도 변방의 시인이 아니라 남한문학사의 중심에 배치시키려고 하였다. “시인 윤동주, 급기야는 조국과 자유와 문학을 위하여 …(중략)… 순절한 시인”(203쪽)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독재와 억압의 횡포한 폭력에 끝까지 항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운 온 세계의 레지스탕스”(203쪽) 문학의 반열에 해당한다는 세계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정병욱은 「후기」에서 ‘조국’이란 언어를 10번, ‘자유’는 7번 활용했다. 윤동주는 “조국과 자유를 죽음으로 지킨”, “조국과 자

60) 정병욱은 「고 윤동주 형의 추억」이란 글을 이후에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글 목록에서 빼버린 듯하다. 『백영 정병욱 저작 전집⑦—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신구문화사, 1999) <1부 별 헤는 밤에 붙여>란에 윤동주 회고글을 모았지만, 거기에도 이 글은 빠져 있다.

61) 정병욱, 「후기」;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55. 이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를 괄호 표시한다.

우와 문학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나”(204쪽)는 존재로 재정립되었다. “조국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언어의 조합을 통해 윤동주를 ‘자유 민주주의’ ‘조국’에 헌신한 문학적 표상으로 윤동주를 생성하고자 의도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이념에 충실한 언어의 조합이었던 것이다.

초판본에서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세계에서 ‘8·15 이후 조선의 운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민족시’의 전망과 가능성을 타진했고, 벗들은 ‘시와 조선과 인민’이란 가치체계 속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를 추도했다. 초판본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재건을 통한 남북통일정부를 지향하는 노선에 서 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윤동주를 기억했다. 이제 윤동주의 문학적 지향은 ‘인민의 조선을 위한 문학’(초판본)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문학’(재판본)으로 재맥락화되었다.

1955년 재판본에서 “항거의 정신”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독재와 억압의 도가니 속에서 가냘픈 육신에 의지한 항거의 정신”(199쪽), “항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운”(203쪽) 문학으로서 윤동주 문학을 규정했다. 이후 윤동주는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시와 조선과 인민’으로 윤동주를 표상했던 유영(柳玲)은 5~60년대 윤동주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침묵하며 근심했다. 오랜 침묵 후 유영은 1974년 『연세』 9호를 통해 「윤동주론」을 발표했다는데, 초판본 때와는 다른 윤동주의 상을 그렸다. 정병욱과 같은 논조에서 “윤동주는 철두철미 민족과 자유를 지향하는 바탕위에 태어난 천생의 민족시인”<sup>62)</sup>, “민족과 시와 자유와 더불어 원수의 손에 고귀한 순절”(100쪽)을 한 시인, “우리의 종족을 찾을 것이라는 저항정신”(103쪽)을 견지한 시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윤동주의 기독교적 교양과 신념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그것이 윤동주의 “자유주의적 사상과 이념의 바탕”(97쪽)이 되었고 “우리 겨레의 근대화를 이바지하는 데 큰 영향”(97쪽)을 주었다며 “그의 민족정신은 기독교정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민족저항시로 승화한 것”(104쪽)이라고 평가했다. 윤동주는 기독교적 순절의 시인, 민족저항

62) 유영, 「윤동주론」, 『연세』 9호, 연세대학교 교지편찬위원회, 1974.7, 97쪽. 이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를 괄호 표시한다.

시인으로 호명되었다.

## V. 결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은 1948년 1월 30일 정음사에 서 출간되었다. 초판본 시집 출간에 관여한 사람들은 정지용, 강처중, 유영, 정병욱, 김삼불 등이었다. 정지용은 윤동주를 통해 ‘8·15 이후 조선의 운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민족시’의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지용을 비롯한 초판본 편집·간행 참여자들은 윤동주와 시집을 ‘시와 조선과 인민’을 상상하는 텍스트로 기억하고자 했다. 이들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재건을 통한 남북통일정부를 지향하는 노선에 서 있었고, 그런 위치에서 윤동주를 기억했다. 단독정부 수립 후 이들 다수는 배제·추방되거나 전향하거나 월북했다. 1953년, 정음사는 『한하운 시초』 재판본을 출간했다가 공산간첩의 문화공작이라는 필화사건을 겪었고, 강처중이 배후로 언급된 ‘정국은 간첩단 사건’이 터져 온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문화빨치산’ ‘문화계 간첩’ ‘출몰’ ‘침투’ ‘색출’ ‘처단’이라는 냉전적 언어가 난무했다. 한국전쟁 종전 전후 한국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재편되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도 새로운 판이 요구되고 재맥락화를 시도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은 불온한 텍스트로 오인될 위기에 처했다. <추도시>에서 ‘시와 인민’을 언급한 유영은 이후 근신했다. 초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정병욱은 재판본 출간을 통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와 윤동주를 둘러싼 컨텍스트의 재정립을 시도했다. 시집에서 정지용, 강처중, 유영은 빠지고 가족적 차원에서 재편찬했다. ‘시와 조선과 인민’ 대신에 ‘조국과 자유와 문학’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이념에 부합한 언어들로 「발문」을 다시 썼다. 이후 ‘기독교적 순절의 시인’,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서의 상징 획득이 추진되었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중앙일보, 문장, 연희춘추, 연세춘추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48.1.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55.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4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계훈모, 『한국언론연표Ⅲ』, 관훈클럽신영기금연구기금, 1993.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김철, 『구체성의 시학』, 실천문화사, 1993.  
박민규, 「조선문학가동맹 ‘시부’의 시 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시학연구』 33호, 한국시학회, 2014.4, 183-217쪽.  
배호남, 「해방기의 정지용 문학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29집,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15, 161-193쪽.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9.  
엄동섭, 「기슴 속에 하나 둘씩 새겨지는 별들의 이력서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판본 비정과 서지 분석」, 『근대문학』 4호, 국립중앙도서관, 1917.6.  
오영식,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2009.  
유성호, 「세 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한국시학연구』 51호, 한국시학회, 2017.8, 9-27쪽.  
유 영, 「연희전문 시절의 윤동주」, 『나라사랑』, 외솔회, 1976.6.  
유종호, 『나의 해방전후』, 민음사, 2004.  
유춘동, 「남북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15.6, 69-87쪽.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15-254쪽.  
이석우,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평전』, 푸른사상사, 2006, 89-90쪽.  
장철환, 「해방기 정지용 시의 연구」, 『한국시학연구』 51호, 한국시학회, 2017.8, 277-312쪽.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전향의 반향」, 『반교어문연구』 32호, 반교어문학회, 2012.2, 287-322쪽.  
——,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집, 상허학회, 2014.2, 147-184쪽.

——, 「윤동주에게 있어서 ‘시’와 ‘시인-됨’의 의미」, 『근대서지』 9집, 근대서지학회, 2014, 472-499쪽.

정지용, 최동호 엮음, 『정지용전집1』, 서정시학, 2015.

허정,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논총』 제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571-608쪽.

- **주제어** : 윤동주, 정지용, 강처중, 정병욱, 초판본, 재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해방기, 냉전, 재맥락화, 문단재편성

논 문 접 수 일	2017년 10월 25일
심 사 완 료 일	2017년 11월 11일
게 재 확 정 일	2017년 11월 15일



●Abstract

##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Edition and Second Edition of *Sky, Wind, Star*

Jeong, Woo-Taek

(Sungkyunkwan University)

Yoon, Dong-Ju's poetical works was published on January 30, 1948 in Jeongum press. With this book of poetry, he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poet. His friends(Kang, Cheo-Joong, Yu, young, Jeong, Byung-wook) and Jeong, Ji-yong helped the publication of the book. Jeong, Ji-yong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a new national poetry from Yoon, Dong-Ju' poet in Liberation period. They remembered he as 'an imagery of poetry and Chosun and Poeples'.

But with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were excluded or converted or defected to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re was a political and cultural reorganization. In the case of Jeongum press, they published Han, Ha-Un Poetry(1953). And then the poetry was pointed out as the communist cultural case. Kang, Cheo-Joong was denounced as the mastermind behind the spy incident.

As a result, the first edition of *Sky, Wind, Star* became a rebellious text. Jeong, Byung-wook and Yoon's family published the second edition of *Sky, Wind, Star*, and tried to make a new feature in Yoon, Dong-Ju context. They replaced 'an imagery of poetry and Chosun and Poeples' with 'an imagery of Nation and Freedom and Literary', 'Freedom and Democracy'. The introduction of that poetry was filled with words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ideology. With the publication of second edition, Yoon, Dong-Ju gained his position as a symbol of 'the resistance of a poet', 'the National poet'.

- **Keywords** : *Sky Wind Star*, Yoon, Dong-Ju, Kang, Cheo-Joong, Jeong, Byung-Wook, Jeong, Ji-Yong, first edition, second edition, Jeongum press, recontextualization, liberation period, cold war